

# 防 災 活 動 的 水 準 向 上 을

孫 京 植 <안국화재해상보험(주)사장>



韓國火災保險協會의 誕生은 우리나라 損害保險 發展史의 重要한 部分이다. 1970年代 初에 「대연각 화재」, 「대왕코너 화재」, 「시민회관 화재」等 잇따른 大型火災로 防災에 對한 各界의 關心이 높아지기 始了했고, 이러한 社會的 要請에 副應하여 火災로부터 나라의 財産과 겨레의 生命을 安全하게 보살핀다는 理念 아래,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에 따라 損害保險業界가 힘을 합쳐 國內最初의 防災活動機構를 設立하였다는데서 火災保險協會의 發足은 所重한 意味를 갖는다.

保險의 歷史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이웃 日本에서도 이러한 規模의 民間出捐 防災機構를 찾아 볼수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火災保險協會의 誕生은 우리나라 損害保險이 한층 더 前進하고, 그 使命을 다하기 위한 발돋움이었다고 하겠다.

發足 以來 오늘날까지 火災保險協會가 實施하여 온 防災活動은 火災의 發生을 抑制하고, 火災로 인한 被害의 規模를 줄이는데 크게 寄與하였으며, 企業과 家庭의 安定에 이바지한 바 크다.

이는 火災保險協會 任職員들의 숨은 勞苦의 結實이며, 우리 損害保險業界로서는 더욱 보람을 느끼는 바이다.

이제 뜻깊은 創立 10周年을 맞이하여 火災保

險協會 任職員들은 앞으로 防災活動의 領域을 넓혀 나가고, 그 質的 水準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해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研究所의 設立을 推進中에 있거니와, 世界的으로 널리 알려진 美國의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이나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英國의 「FRS(Fire Research Station)」나 「FOC(Fire Offices' Committee)」, 또는 獨逸의 「VdS(Verband der Sachversicherere. v. Kohn)」, 「알리안스 試驗센터(Allianz Zentrum für Technik)」등처럼 單純한 點檢의 次元을 넘어서서 材質의 檢査나 性能과 安全度의 테스트를 비롯하여, 防災에 關한 폭넓은 調査研究과, 나아가 認證까지도 할 수 있도록 權威있는 機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우리는 火災保險協會의 防災活動이 지금까지 成果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關係當局의 指導와 國民 모두의 폭넓은 理解와 協助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결코 잊을 수 없다.

앞으로도 火災保險協會는 맡은바 使命을 再認識하고, 當局과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도록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모든 努力을 다함으로써 國民 모두로부터 더욱 愛護 받는 協會로 發展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